

오래된 미래와 도래할 전통이
만나는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ttp://khenglish.khu.ac.kr/>





세계어로서의 영어, 이론적 실용적 학문탐구

개교 이래 가장 오랜 학문적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영문학과는 세계어로서의 영어, 그리고 영어권문화와 관련된 학문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 학문탐구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어학과 영미문학과 문화뿐만 아니라 실용영어를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총 정원은 43명으로 소규모 소수정예 맞춤 교육을 지향합니다.

영어영문학과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시대를 창의적으로 선도해 나아가는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영어영문학의 기초 지식 습득과 응용,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의 배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어권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도모합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반한 영어 빅데이터 분석과 언어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 날이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사유의 훈련을 통해 능동적인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 모든 분야에 연계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어학과 영문학의 깊은 이해

영어학과 영문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어학 과목들은 언어학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영어 사용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영어학개론과 영어문법과 같은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과목을 시작으로 빅데이터와 영어교육, 영어통사구조의 이해, 심리언어학이해와 같은 응용 및 심화 과목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영문학 과목들은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범영어권의 문학과 영미권의 대중문화의 폭넓은 이해가 목표입니다. 우선 <영문학개론>에서 문학 형식을 이해하고 작품 해석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비평이론>, <문학과 영화>, <문학과 환경>, <로맨스문학>등의 과목에서 주제 및 형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 능력을 심화합니다.

이밖에 영어영문학과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 받는 교수진

보스턴 등으로의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자에 한해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연극부가 있어서 매학년도에 영어로 정기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교수진은 서울 지역 주요대학 보다 높은 해외1급저널(SSCI, A&HCI) 투고율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통사론, 비평이론, 비교문학, 언어와 뇌과학, 생태주의비평, 중세영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학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교수는 독일 훔볼트재단이 수여하는 훔볼트 프라이즈를 수상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최근 영어권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서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출판했습니다. 유정완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국학의 대가로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최근 개역하여 출판했고, 문학 및 영화에서 재현된 미국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석 교수는 주전공인 모더니즘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영화의 뛰어난 비교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언제나 받습니다. 박해일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과 뇌과학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하는 등 미개척분야의 통섭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교수는 중세영문학의 떠오르는 신진학자로 중세시대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념에서 벗어난 뛰어난 재해석을 선보입니다. 존 에퍼제시 교수는 생태비평이 주전공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조성관 교수는 연극 및 뮤지컬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들

어학적 능력과 영미권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춘 졸업생들은 각종 전문직과 일반 기업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국내 십여 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나 언어학과에 이십여 명의 동문이 재직 중이며 교직의 경우 매년 임용고시에서 다수의 합격자를

자랑합니다. 언론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상석(서울경제TV 대표 이사 73학번), 조한규(전 세계일보 대표이사), 한용길(CBS 대표이사 81학번), 최재봉(한겨레신문 선임기자 81학번) 등이 있습니다. 황수정(93학번), 이승윤(김앤장 국제변호사 93학번), 이윤환(99학번) 등 다수의 법조인과, 이옥수(02학번) 동문 등 공인회계사도 배출했습니다. IT 기업 및 게임,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소태환(전 4.33 대표 98학번), 박채리(네이버 04학번), 김범수(애플 게임에디터 05학번)와 같은 우리 동문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졸업 후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영어영문학과 졸업생들은 국제기구, 언론사, 공연예술 기획 분야, 외교, 공기업과 대기업, 교사, 공무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우는 언어능력과 사고력, 협업, 공감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든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어학과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뿐 아니라, 그 배움의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독해력, 자료조사 능력, 비판적 사고력, 동료들과의 협업,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등은 현존하는 모든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 전공 수업들을 들으며 열심히, 즐겁게 배우면 원하는 커리어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